

# 왜 한국 기독교교육자는 '왜'를 묻지 않는가?1)

신기영

## 1. 문제 제기

대학입시에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소식에 기독교학교 교육자들은 새 학년도에 논술특강을 기획하고 있다. 논술특강을 실시하려는 이유를 물으면 결국 학생들의 대학진학으로 귀결된다. 그런 이유라면 비기독교학교의 교육자들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비기독교학교의 교육자들과 동일한 이유에서 행하는 교육활동이 기독교학교의 거의 모든 활동이리는데 있다. 그래서 질문한다. “기독교학교로서 이 활동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받는 거의 모든 기독교교육자들은 당황스런 표정을 짓는다. 왜냐하면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궁금해졌다. “왜 우리 기독교교육자들은 ‘왜’를 묻지 않고 그냥 교육활동을 하는 것일까?” 이어서 이런 언어습관이 한국사회 전체에 팽배해있음을 인식하고 “왜 우리 한국인은 ‘왜’를 묻지 않게 되었을까?”를 묻게 된다.

## 2. 출발점: 널 포스트만의 통찰

널 포스트만은 ‘신이 없이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신이 없이는 학교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을 편다. 그는 신을 종교적 신뿐만 아니라, 세계와 삶의 중요한 주제들(기원, 미래, 행동의 준칙, 권위의 원천, 목적의식, 인간 등)을 설명해주는 이야기로 규정하며 ‘위대한 신화라고 일컫는다. 따라서 그에게 신은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특히 미국사회에 의미를 주었던 과거의 신들(민주주의, 청교도 윤리, 문화적 다원주의)과 최근 100여 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신들(경제적 가치의 신, 소비지향의 신, 기술의 신, 다문화주의의 신)을 소개하며 그 각각 분석한다. 이들에 대한 분석의 준거는 각 신이 학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에 있다. 그가 볼 때, 그 설명력의 정도는 각 신이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설명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2) 이에 근거하여 그는 위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문제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최근의 신들은 학교교육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서 과거의 신들보다 떨어진다고 본다.3) 그래서 오늘날 학교교육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 이 글의 윤곽은 존경하는 여러 학자들의 조언에 의해 잡혀졌다. 김선요 교수(서울여대), 박상진 교수(장신대), 유재봉 교수(성균관대), 오형국 박사(숭실대), 김중락 교수(경북대), 이숙경(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강영택 박사(장신대) 등에 감사를 드린다.

2) 널 포스트만, 차동춘 역, 교육의 중국 (문예출판사, 1999), 24쪽.

3) 그 예가 포스트만의 책, 51쪽에 소개됨.

그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신들을 소개 한다: 지구에 대한 도덕적 의무, 지식의 불완전성, 끊임 없는 논쟁, 다양성의 원리, 언어의 세계관 창조 등.

‘존재이유에 대한 신들의 설명력 차이’라는 그의 통찰은 “질문은 확실한 답이 얻어지는 과정이 없이는 답해질 수가 없다.”라는 진술문에서 다시 강조 된다<sup>4)</sup>. 나는 이 진술문에 다음 질문을 더해본다. “그런데 만약 확실한 답이 얻어지는 과정이 없어 답해지지 않는 질문은 제기 될 것인가?” 즉 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답을 묻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강한 의혹이 든다. 제기되더라도 답이 계속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분명 그 질문은 도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신 아래 있는가에 따라 질문 그 자체가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들 중에서 어떤 종류, 여기서는 “왜”가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본다.

이 연구의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한국인이 ‘왜’를 묻지 않는 언어습관을 갖게 된 것은 한국사회의 신들이 ‘왜’에 대해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가설을 갖고 먼저 한국사회의 신들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 3. 한국 신들(gods)에 대한 세계관적 분석

한국사회를 다스리는 신들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 신들을 한국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통종교들, 특히 불교와 유교라고 가정하고 이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sup>5)</sup>

불교는 우주 만상이 - 역사도 포함하여 - 인연으로 이뤄지고 실체가 없는 ‘공’이라고 본다.<sup>6)</sup> ‘인(因)’은 첫 요인으로 씨앗이고, ‘연(緣)’은 비, 토양, 농부의 수고 등이다. 모든 생명체는 육도(지옥, 아귀, 축생, 이수라, 인간, 천상)를 선화하며, 죽은 후에는 업에 따라 다음 삶으로 옮겨 간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악업을 쌓으면 지옥의 생사로, 그리고 선업을 쌓으면 천상과 인간의 생사로 옮겨간다. 선악의 기준은 욕심으로 더러워진 거짓 자아를 따르는가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참 자아를 깨닫고 따르는가에 있다. 참 자아의 깨달음은 곧 ‘자아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처럼 자아는 사실 실체가 없고 인연에 의해 존재했다 사라지는 ‘공(空)’이기 때문이다. 이런 깨달음은 ‘한번에’ ‘갑자기’ 일어나고(돈오돈수,頓悟頓修),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된다. 외적 절대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내부의

4) 포스트만, 245쪽에서 인용함.

5) 한국갤럽의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 따르면, 불교인구는 총인구대비 24.4%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개신교인구는 21.4%로 두 번째로 크다. 개인교 개종자 가운데 이전에 믿었던 종교가 불교였던 인구는 7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불교의 영향은 한국인 전체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교는 종교라기 보다는 문화적 성향으로 측정되었는데, 종교인구와 비종교인구가 유교적 성향을 각각 45%와 40%의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6) 불교에 대해서, 심백강의 누가 가장 자유로운가: 불가 (청년사, 2000). 최준식의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무교, 유교, 불교(사계절, 1998)

권위만을 인정한다. 참다운 인간을 추구하는 이유는 괴로운 인생을 벗어나 대자유(해탈열반)로 가기 위해서이다).

불교에 질문한다. 실재의 첫 요인인 '안'은 어디에서 기원된 것인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설명에 한계가 있다. 존재의 설명을 인연에 두는 것은 존재의 조건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고 존재의 목적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인연의 만남과 해체는 우연적인 것이고 어떤 의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욕심이 인생에게 괴로움을 주는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어디서 기원되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실존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본성을 갖기 때문에 실재의 본성, 즉 '그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산이 산임을 깨닫는 것은 산이 '공'임을 깨달을 때 가능하기에 산의 본성에 대한 탐구는 가능하지 않다. 역사는 육도라는 닫혀진 체계 안에서 반복되기에 무한한 미래를 지향하기 힘들다. 윤리에서, 윤리적 삶의 절대 조건인 '자의식의 소멸'과 선업을 통한 더 나은 다음 인생의 기대 의식이 한 사람의 의식 속에 공존할 수 있을까? 윤리적 판단이 개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데서 오는 한계를 발견한다.

유교는 세계를 천(天), 지(地), 인(人)의 세 영역으로 나눈다.<sup>8)</sup> 천은 만물을 생성하는 조화작용을 하고, 인간과 세계에 명령하고 당위적 기준을 제시한다. 천의 조화작용은 천의 의지에 의한 창조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른 생성변화이다. 그리고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모든 현상세계의 기질과 형기를 자료로 한 창조 작용이다. 그리고 천과 인간은 신체의 기질과 성품의 이치에서 일치하는 합일적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유교는 만물의 이치(인간의 본성, 誠과 사물의 이치, 理)가 마음에 들어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개인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치를 알아간다. 맹자에 따르면, 아는 것은 개별자의 내적 체험이고 수양을 통해 얻어지는 각성이다.

유교는 참다운 인간상을 성인군자라 하고, 수기안인(修己安人)의 삶 - 스스로 닦고 그 닦은 바를 갖고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삶 - 을 사는 자를 말하다. 수기에는 자연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지켜 평안한 사회 구현을 지향하는 인(仁), 인의 시작인 부모 공경의 효(孝), 때와 상황에 맞게 개인적으로 행하는 의(義), 인의 표현인 예(禮)로 구성된다. 그런데 예가 목적화 되고, 집단적 성향화 되면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내기가 어렵다.<sup>9)</sup> 안인에는 덕치를 강조하는 정치과 나누어가짐을 강조하는 경제로 구성된다. 성인군자는 마음에 있는 만물의 이치를 - 인간의 본성(성, 誠)과 사물의 이치(이, 理)로 구성된 - 스스로 내적 성찰의

7) 해탈설 - 누구나 진리를 깨달으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 은 불교인 중에서 41.3%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그 사상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국 갤럽 2004 조사결과)

8) 유교에 대해서, 금장태의 유학사상과 유교문화(전통문화연구회, 1996), 심백강의 무엇을 사람이라 하는가: 유가 (청년사, 2000), 최준식의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무교, 유교, 불교(사계절, 1998), 이영찬의 "유교적 삶의 사회학 방법론적 함의" 한국사회학 (35:1:89-115).

9) 이것은 한국유교에 대한 이숙경 교수(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의 분석에서 빌려왔다.

수양을 통해 각성하여 된다. 유교는 죽음을 삶의 종결로 보고, 사후세계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기에 조상의 영을 초대하는 제사의례는 무교적 영향의 산물로 본다. 그러나 무교와는 달리 조상의 영이 현세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본다.

유교에 질문한다. 천은 무엇으로부터 기원하였는가? 천의 창조 작용 이전에 존재하는 자료들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등 실재의 기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조화작용을 하는 천은 의지에 의해 수행하지 않기에 만물의 존재 목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왜 수기안인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천은 비록 만물 생성의 근원이며 인간과 세계에 당위적 기준을 제시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붙들려 있고 현세에 제한됨으로 미래를 제시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천은 행동 준칙을 제시하지만 실제 도덕적 권위의 원천은 공동체에 있는 것 같다.

#### 4. 한국 신들의 설명력이 제한하는 언어습관, “왜의 부재”

불교와 유교에 대한 위의 간략한 조사는 “왜 우리 한국인이 ‘왜’ 질문에 익숙지 않은가?”를 한국사회의 신들의 영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첫째, 불교와 유교는 공히 실재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는 모든 실재의 최초 원인을 - 불교의 ‘인’, 유교의 ‘천’ - 실재를 초월한 존재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불교와 유교는 최초 원인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기에 실재의 근원으로 주장됨에도 불구하고 실재를 존재하게 한 의도를 말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재의 존재 목적과 이유 - ‘왜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 에 대해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이 신에 영향을 받은 한국인은 ‘왜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를 묻지 않게 된 것이다.

둘째, ‘왜 어떤 것이 선택인가?’에 관한 윤리에 있어서 불교와 유교의 설명력은 한계를 가진다. 윤리적 기준을, 불교는 ‘자의식 소멸’, 유교는 사람의 마음에 내재한 ‘천’에 둔다. 윤리적 판단은, 불교에서는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유교에서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일어난다. 윤리적 기준과 판단이 개인 또는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기에 ‘왜 어떤 것이 선택인가?’에 대한 대답이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에 직결된 상황에 따라 그리고 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변화될 위험성을 가진다.<sup>10)</sup>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개인과 공동체를 초월해 보편적이지 않다면, 그 대답에 근거하여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 ‘왜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신 아래 있는 한국인은 ‘왜 어떤 것이 선택인가?’, ‘왜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게 된 것이다.

10) 부모공경도 내 부모를 우선시하는 차등적 사랑을 보인다. (최준식의 책, 132쪽).

셋째, 불교와 유교에서 앎(깨달음)은 개인이 스스로 내면적 성찰을 통해 얻어야 하는 개인적 과제이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에 이미 그 답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깨달은 바를 깨달음의 과정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후자의 사람이 전자의 사람에게 그의 깨달은 바를 묻는다는 것도 부질없는 행동일 것이다. 또한 타인에게 질문하는 것은 자신이 깨달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행위로 여겨지고, 또한 학습자로서의 무책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회심리학적 이유는 한국인이 질문 제기 그 자체를 힘들어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 5. '왜 부재'의 언어습관을 강화한 '국가주도의 신'

전통적 신들이 한국인의 언어습관에 깊이 심어 놓은 '왜 부재'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국가주도의 신'에 의해 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국가주도의 신'은 '정치권력의 신'이 경제성장 과업을 통해 성육신한 것이다. 해방 전 한국사회는 조선의 절대왕정과 일제의 식민 정치권력에 의해 지배되었고, 해방 후에는 군부에 의해 세워진 제 3공화국(1962-1972)에서부터 유신정권인 제 4공화국(1972-1979)을 거쳐 제 5공화국의 전반기(1980-1983)까지 군사정권의 정치권력의 지배아래 있었다. 이 긴 기간 동안 시민의 대국가적 활동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은 시민에게 '질문하는 환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동안 억제되었던 대국가적 활동은 많이 허용되었지만, '국가주도의 신'은 여전히 사회의 모든 영역들에서 건재함을 발견한다.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 그 신의 위력은 평준화 제도의 고수에서, 그리고 모든 교육 주체들이 그들의 교육관련 권들을 국가에게 요구하는 양상에서, 드러나고 있다.<sup>11)</sup> 평준화제도는 계속적인 국가주도적 입시 개혁을 통해 정착되었다. 3공화국은 중학교 무시험 추점배정제(1969-1971)를 정착시켰고, 유신정권은 1973년도부터 고교입시제도를 개혁했고, 국보위는 1980년도에 과외해소방안을 발표하여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했다. 그리고 현 노무현정권은 내신등급제를 통해 대학입시제도를 다시 개혁했다. 즉 상급학교 진학 평가까지 국가가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 사립학교와 종교계 사립학교들의 반발과 3불정책에 대한 대학들의 반발은 이 국가주도의 신을 거스르는 최근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신 아래서 익숙하게 된 '왜 부재'의 언어습관은 교육계에서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 6. '왜'에 개방적인 기독교의 영향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왜 볼 수 없는

11) 김신일,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2003). "제 4장 한국교육 변천의 사회적 배경." 이주호,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학지사, 2007). "제 1장 평준화에 접령당한 학교."

가?

불교와 유교와 함께 한국에서는 기독교의 영향도 그 인구수로 보아서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기독교는 세계와 삶의 중심 주제들에 대해 어떤 설명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기독교는 먼저 모든 실재가 인격적 초월자에 의해 그리고 그의 의도에 따라 무에서부터 창조되었다고 믿는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피조물들이 따라야 할 자연법칙과 자연법이 주어졌다고 한다.<sup>12)</sup> 초월신이 자연법을 인간에게 줌으로 윤리 기준이 신으로부터 주어졌고, 윤리적 판단도 인간이 아니라 초월신에 의해 내려진다. 그러나 이 초월신에 대한 반역행위, 즉 죄로 인해 자연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게 되었고, 이 죄가 인류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초래했다. 그리고 죄는 인간 스스로 풀 수 없고 초월신이 보낸 그의 아들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지고 그 아들의 영의 도움으로 정결 과정이 지속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사람은 초월신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의 약속을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자신과 다른 실재의 존재 이유를 초월신으로부터 듣게 되어 그의 창조한 의도를 실현시키는 일에 소원을 품게 된다. 전통종교의 숙명론과 달리, 사람은 그의 존재 이유를 초월자와의 교제 속에서 계속 깊이 알아가고 그 목적을 초월자와의 대화를 통해 함께 이뤄간다.<sup>13)</sup> 이 대화 과정에서 사람은 초월신에게 반항적인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고백하는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신과 다른 실재들에 대한 무지로 인해 초월신에게 물어가는 의존적 존재임을 인정한다.

이런 기독교의 신념은 사람으로 “왜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왜 어떤 것이 선한지?” “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그 초월자에게 적극적으로 물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준다. 이것은 분명 그 초월자와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중요한 타자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개방적 태도를 갖게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질문에 개방적인 언어습관을 장려 받는 기독교교육자들은 여전히 “왜”를 묻는데 익숙지 않을까?

먼저, 필자는 앞에서 소개한 신들(불교와 유교)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며, 이와 함께 한국의 모든 신들에게 통전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무교에서 또 다른 답을 찾고자 한다. 무교는 비일상적 사건을 풀기 위해 무당의 중재를 빌려 신령들(피조물-자연물, 죽은 사람, 특수한 물건들)의 도움을 청하는 종교로서 이 땅의 신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신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12) C.S. Lewis에 따르면, 자연법칙은 자연이 따르는 법이며, 자연법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따라야 하는 법이다. 순전한 기독교(홍성사, 2002) 1장 “인간본성의 법칙.”

13) 오스 기니스. 소명 (IVP, 2000). 3장 “나는 누구인가?”

유입된 모든 신들이 다 이 신의 영향을 받았다. 무교가 남긴 가장 큰 영향은 종교의 도구성이라고 생각한다.<sup>14)</sup> 즉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 사건, 또는 문제를 신령한 힘들을 이용해서 해결하려는 종교적 태도, 그리고 기복사상은 바로 한국인의 종교성에서 발견하는 무교의 자취이다.<sup>15)</sup> 이런 태도와 사상이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음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바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들의 신에게 “왜”를 묻지 않고, 갖고 싶은 복과 어려운 일의 해결을 요구하는 경향에 빠지게 된다. 더 이상 질의응답의 대화가 사라지는데, 이는 초월신의 인격적 관계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인들도 일상적인 일, 자신의 능력으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 지금까지 잘 해내려오는 일 등에 대해 그들의 신에게 묻지 않게 된다.<sup>16)</sup>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이런 무교적 종교성이 침범해 들어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원리를 일상적 삶에서 실제 자주 실천하지 않아 확고한 언어습관을 형성시키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한다. 성경적 원리와 일상생활이 서로 분리된 이원론적 삶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원론적 삶의 유형이 너무도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내면에서 일고 있는 신들간의 갈등에 둔감해져 있다.

## 7. “왜” 질문의 두 차원: 제도적 이유와 개인적 동기

펼치는 학교교육의 존재 이유라는 제도적 차원이 교육활동의 실행 이유를 통해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개인의 동기라는 심리적 차원과 통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학교현장에서 발견한다. 어떤 교육활동을 행하는 이유는 그 학교의 존재 목적으로부터 도출된다. 즉 다른 활동들과 함께 그 활동을 통해서도 그 학교의 존재 목적을 조금 더 이루기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한 교육활동에 부여한 이유는 그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동기로 자리 잡게 된다.<sup>17)</sup> 교육에 참여하는 자들의 동기는 자신의 인격에 뿌리는 ‘씨와 같다. 어떤 씨를 갖고 교육활동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활동을 통해 그 사람 안에는 그 동기의 씨가 자라나 맺는 인격적 결실을 얻게 된다.

4월을 맞아 우리 공동체는 한국의 모든 학교들이 행하는 식목행사를 했다.<sup>18)</sup> 식목행사를

14) 이숙경 교수의 조언에 기초함.

15) 한국 종교인들이 종교 신앙을 갖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마음의 평안”(67.9), 복(15.6)으로 나타난다. (한국갤럽 2004년 조사)

16) Richard Edlin 박사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하기에 그냥 행하는 것을 “문화적 우상숭배”라고 일컫는다. 이 개념에 대한 그의 설명은 기독교사세움터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acedb>)에서 찾을 수 있다.

17) 이유와 동기를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닐 포스트만의 견해(그의 책, 20쪽)과는 다르다.

18) 이에 대한 글들, “왜 우리는 식목행사를 해야 하나?(수정본)”, “식목행사 후기”는 기독교사세움터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acedb>)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물을 감상할 줄 아는 능력이 많이 부족함을 발견한다. 왜 그럴까? 자연물을 누릴 줄 아는 능력은 자연물을 가꾸는 수고를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변의 자연물을 가꾸는 수고를 통해 우리 안에 자연물을 감상할 수 있고 누릴 줄 아는 능력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식목행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 아이들은 자연물을 가꾸는 수고를 왜 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물을 누릴 줄 아는 능력을 선물로 받아 자연과의 살림의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